

「영신수련」의 ‘그리스도 왕국’ 묵상의 위치와 역할

심 중 혁

(예수회 신부,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그리스도 왕국’ 묵상의 위상
- III. ‘그리스도 왕국’ 묵상의 독창성
- IV. 예수회 전통 안에서의 ‘그리스도 왕국’ 묵상
- V. ‘그리스도 왕국’ 묵상의 내용
- VI.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영신수련」에는 통상적으로는 ‘그리스도 왕국’[91-98]이라 불리는 묵상이 첫째 주간과 둘째 주간 사이에 제시되어 있다. 이 묵상은 하느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거룩한 왕국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느님의 자비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일깨운다. 이나시오가 구성한 첫째 주간의 묵상들을 보면 적어도 그 외적으로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묵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듯하다. 오히려 죄인으로서의 깊은 자각을 강조하면서 자비하신 하느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숙고하도록 이끈다. 이러한 맥락, 즉 첫째 주간의 연속성에서 이 ‘그리스도 왕국’ 묵상을 바라본다면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자비가 어떻게 죄정자의 삶에서 구체화되도록 이끄는지를 이해하게 된다.¹⁾

우리는 이 연구에서 「영신수련」의 역동성이라는 전체 맥락에서 ‘그리스도 왕국’ 묵상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II. ‘그리스도 왕국’ 묵상의 위상

1) Cf. David L. Fleming, “The Ignatian Spiritual Exercises: Understanding a Dynamic,” in *Note on the Spiritual Exercises of St. Ignatius of Loyola* (St Louis: Review for Religious, 1983), p. 19.

‘그리스도 왕국’ 묵상은 그 자체가 하나의 ‘원리와 기초’처럼 구성되어 있어, 잇따르게 될 여러 다양한 영신수련들을 위한 통합적인 도입부를 형성하고 있다. “현세적 왕의 부름에서 영원하신 왕의 생활을 관상함”[91]이라는 설명이 지시하는 것과 같이 이 묵상은 둘째 주간 뿐 아니라 셋째와 넷째 주간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이 묵상을 통해 피정자는 자신이 지닌 여러 종류의 열망에 초점을 부여하여 하나로 통합하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적극 동참하도록 초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를 통해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하여, 「영신수련」에서 언급하듯이 “올바른 판단력과 이성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사업을 위해서 자기 전체를 바치겠다는”[96]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묵상을 통해 피정자는 앞선 단계에서 강조되었던 불편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열심함과 쾌활한 마음으로 가난하고 수고하시는 그리스도께로 기울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가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따르고 선택하려는 열망이 둘째 주간의 기본 역동성이 된다. 즉, ‘그리스도 왕국’ 묵상은 ‘원리와 기초’[23]를 다른 형태로 재구성하여 묵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일부 해석가들은 “둘째 주간의 원리와 기초”라 부르기도 한다.²⁾

첫째 주간에서 둘째 주간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으로서의 ‘그리스도 왕국’ 묵상은 피정자 안에 하느님의 자비하신 은총에 대한 관대한 응답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업에 투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높이게 된다. 동시에 이 묵상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각자를 당신의 사도로 초대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스도 왕국’ 묵상을 마치면서 바치게 되는 봉헌의 기도[98]에서 이나시오는 사도적 삶의 근본 기초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길, 즉 가난과 모욕과 고통의 길이다. 따라서 가난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성취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도 하다.

III. ‘그리스도 왕국’ 묵상의 독창성

이 ‘그리스도 왕국’ 묵상은 ‘두개의 깃발에 대한 묵상’[136-148], ‘원리와 기초’[23], 그리고 ‘겸손의 세 가지 단계’[165-168]과 더불어 「영신수련」에 있는 네 개의 핵심적인 묵상 중의 하나이다. J. 나달에 의하면, 이 중에서 특히 ‘그리스도 왕국’과 ‘두개의 깃발에 대한 묵상’이 이나시오가 만레사에서 얻은 고유한 내적 통찰을 반영해 주고 있다고 본다.

이나시오와 동시대에 살았던 J. 나달(J. Nadal)에서 현대의 H. 라너(Hugo Rahner)에 이르기까지 예수회의 전통 안에서 이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적용이 때로는 서로 모순되게

2) David Fleming, *op. cit.*, p. 10; H. Coathalem, *Ignatian Insights* (Kuangchi Press, 1971), pp. 130-131; H. Rahner, “Notes on the Spiritual Exercises,” in *Woodstock Letters* 5 (1956), pp. 318-329.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묵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간단한 역사적 고찰이 필요하다.

우선 ‘그리스도 왕국’ 묵상에 대한 다음의 몇 가지 사실에 주목하자.

첫째, 「영신수련」의 본문을 살펴보면 이냐시오가 이 ‘그리스도 왕국’을 결코 “묵상 *meditacion*”이라거나 “관상 *contemplacion*”이라는 용어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냐시오 자필 「영신수련」 사본에서 “고찰하다 *considerar*”라는 동사가 세번 사용되고 있고, “고찰 *consideracion*”이라는 명사가 한번 사용되고 있다. P. 파브르(P. Favre)의 피정 노트에서도 “고찰하다 *considerar*”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³⁾

둘째, 이냐시오의 자필 사본에 기초한 「영신수련」의 첫 출판본에는 ‘그리스도 왕국’ 묵상이 담긴 쪽 왼쪽 위 모서리에 “둘째 주간”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그리스도의 강생에 대한 관상이 둘째 주간의 첫 묵상이 되기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리스도 왕국’ 묵상은 둘째 주간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이 묵상의 위치가 첫째 주간의 묵상들과 부칙 다음에 나오기에 첫째 주간에 속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즉, ‘그리스도 왕국’ 묵상은 첫째 주간과 둘째 주간의 전환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대부분의 영신수련들은 묵상이나 관상을 마무리함에 있어 ‘주의 기도’로 끝을 맺지만, 오직 이 ‘그리스도 왕국’ 묵상에서만은 그러한 지시가 없다.

넷째, 또한 이 묵상에는 담화에 대한 지시나 권유도 없다. “더욱 고귀하고 더욱 가치 있는 봉헌”을 위하여 바치게 될 봉헌기도문[98]은 결코 담화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이 마땅히 어떻게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답해야 하는가를 비유로서 제시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냐시오가 피정자를 안내함에 있어 늘 적당한 담화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며 여기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 묵상에서는 왜 그러한 조언과 배려가 없었는가를 조심스레 주목해야만 할 것이다. 이냐시오에게 담화란 결코 한 영신수련의 마무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전체 영신수련이 나아가는 그 목표를 향한 지시점인 것이다. 즉, 담화는 「영신수련」의 방향과 움직임을 보여주며 하느님과 함께 하는 친밀한 기도의 절정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섯째, 「영신수련」의 다른 묵상이나 관상들과는 달리 ‘그리스도 왕국’ 묵상에는 “영신적 이익을 거두라”는 조언이 없다. 단지 피정자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귀머거리가 되지 말고, 하느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을 완수하는 데 열심하고 쾌활한 자가 되기 위하여 은총을 구할 것이다”[91]라는 둘째 길잡이가 「영신수련」 첫머리에 “피정하는 이는 자기의 창조주에 대하여 관대하

3) Cf. William Peters, *The Spiritual Exercises of St. Ignatius. Exposition and Interpretation*, (The Program to Adapt the Spiritual Exercises, 1967), p. 71.

고 아낌없는 마음으로 피정을 시작하는 동시에, 자기의 모든 욕망과 자유를 하느님께 바쳐서, 지존하신 하느님께서 자기와 자기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당신 거룩하신 뜻대로 안배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크게 유익할 것이다”[5]하는 일러두기의 정신을 상기시키고 있을 뿐이다.

여섯째, 이 묵상에서 고찰할 주요 내용은 부르심이다. 이것은 “현세적 왕의 부름에서 영원하신 왕의 생활을 관상함”이라는 이 묵상의 본래 제목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즉, 이 단계에서 피정자는 아직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며 고찰할 기준과 가치들을 마련할 준비단계에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 이나시오가 어떻게 이 묵상을 진행시켰는가를 살펴보자. 첫째 주간의 고된 작업을 마친 피정자에게 하루의 휴식이 주어진다. 1599년의 「영신수련」 공식 지침서⁴⁾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첫째 주간의 영신수련을 끝낸 후 피정자는 적어도 하루, 긴장되고 힘든 묵상 작업으로부터 휴식을 취한 후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 이 지침서보다 좀더 오래된 폴랑코(Polanco), 곤잘레스 다빌라(González Dávila), 미론(Mirón), 그리고 페레이라(Pereyra)의 지침서들에서도 역시 비슷한 조언을 찾을 수 있다. 만일 ‘그리스도 왕국’ 묵상이 이 쉬는 날에 고찰하게 될 내용이라면 피정자 자신이 내려야 할 그 어떤 구체적인 결심이 제시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지 만일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에 귀머거리가 되지 않겠다는 열망을 지니는 수준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묵상이나 관상의 첫째 혹은 둘째 길잡이, 즉 ‘장소 가상’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구체적인 성서의 구원 사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오직 이 ‘그리스도 왕국’ 묵상에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적이 제시되지 않고, 단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전교하러 다니시던 회당과 읍내와 촌락”[91]이라는 피상적인 구성이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장소 가상에 있어 늘 현재 시제가 사용되는 다른 곳과는 달리 이곳에서만 유달리 과거 시제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스도 왕국’ 묵상의 본문을 해설할 때 다음과 같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해야겠다.

첫째, 피정 지도자가 왕국 묵상의 내용, 즉 왕과 그의 계획, 전쟁과 정복, 군사 행동과 최후의 승리 등의 비유를 비유로서가 아닌 현실로 받아들여 피정자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서’ 응답해야 할 부르심에 대한 고찰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4) 예수회 제 5차 총회(1593)에서 그 동안 전수되고 사용되어온 「영신수련」에 관한 단편적 지침들과 경험들을 총장의 명의로 수집한 후,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공식적으로 「지침서」를 출판하기로 결정했고, 1599년에야 비로소 이 작업이 완성되어 출판되었다. 라틴어본은 *SpExMHSJ* (Monumenta Historica Societatis Jesu--Exercitia Spiritualia S. Ignatii et eorum Directoria), Ed. A. Codina, 1 vol. Madrid, 1919, 1111-1178쪽에 있다. 영역본은 다음의 공인본이다. *Directory to the Spiritual Exercises of our Holy Father Ignatius*. Authorized Translation. (London: The Manresa Press, 1925).

둘째, “거슬러 행하라 *agere contra*”의 정신과 “더욱 고귀하고 더욱 가치 있는 봉헌”[97]은 분명 보다 큰 사랑에 의해 고무된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 등안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바른 판단력과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사업을 위하여 자기 전체를 바치겠다는 것을 생각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감동되어서 우리의 주재자이신 영원하신 임금께 봉사함에 있어서, 특수한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사업을 위해 자기 전체를 바칠 뿐만 아니라...”[96-97]에서 볼 수 있듯이, 부르심에 대한 두 부류의 응답이 있다. 이들의 차이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더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보다 더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결코 아니다. 둘째 부류의 응답은 자신을 부르시는 바로 그분께 대한 사랑을 바라보고 있는 것에 비해, 첫째 부류는 판단력과 이성애 의해 움직이고 동기가 부여된다는 점이다.

셋째, ‘그리스도 왕국’ 목상의 중심은 물론 우리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요구하시는 영원하신 임금이다. 하지만, 때로 이 목상의 중심이 사랑, 혹은 보다 큰 사랑, 관대함 혹은 보다 큰 관대함 등이 차지해 왔다는 점이다. 그 결과로 ‘나’가 주된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거슬러 행하라”는 정신 등이 개별적인 관대함의 외적인 표시가 되어 버렸고, 불필요한 압력과 긴장이 피정자를 압박하게 되어 「영신수련」의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특성인 평화, 안정, 안식 등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왕” 혹은 “임금 *Rey*”이라는 낱말은 ‘그리스도 왕국’ 목상 이외에 다른 곳에서 이냐시오에 의해 사용된 흔적이 없다. 봉헌은 왕이 아닌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신 “만물의 영원하신 주님”[98]께 바치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관상하는 넷째 주간에도 이 “왕”이란 낱말은 사용되지 않는다. 이냐시오의 편지, 「회헌」, 「영적일기」, 그리고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구술된 그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 등의 글들에도 이 언어의 흔적이 없다. 만레사 이후, 예루살렘 성지로 향하는 순례 중의 이냐시오는 더 이상 귀족이나 기사가 아니었다. 「자서전」에서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새로운 병사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단 한번뿐이다. 반면 그가 자신을 “가난한 순례자”로 표현하는 부분이 약 80번이나 된다.

‘그리스도 왕국’ 목상은 첫째 주간의 역동성을 고려해 볼 때 이미 예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냐시오는 이 목상에서 “왕”이나 “기사” 등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불충한 신하와 왕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간단히 언급한다. 한편, 이냐시오는 자신이 붙인 「영신수련」의 다양한 목상들의 제목에 대하여도 상당히 개방적이다. 대개, 그는 목상이나 관상의 내용과 구조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된다: “...에 관한 목상”이라는 안내에 이어 목상할 내용이 언급된다. 준비기도와 두 세 개의 길잡이, 그리고, 담화에 대한 안내가 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 왕국’ 목상의 제목에서는 특이한 점이 보인다. 예를 들어, 첫째 주간의 첫 목상의 제목은 “이 목상은 영혼의 능력을 활용하여 제일, 제이 및 제삼 죄악에 대하여 목상함이다. 이것은 하나의 준비기도, 두 개의 길잡이, 세 개의 요점 및 한 개의 담화로 되어 있다”[45]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왕국’ 목상의 제목은 “현세적 왕의 부름에서 영원하신 왕의 생활을 관상함”[91]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여기에서는 어떤 구조나 준비기도, 길잡이, 요점과 담화 등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냐시오가 ‘그리스도 왕국’이 관상이나 목상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며, 엄격하게 구조화되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 제목이 보여주듯이 이냐시오는 ‘그리스도 왕국’이 피정자로 하여금 영원하신 왕의 생활을 관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 왕국’의 기능과 목적은 바로 이제 전개될 관상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 주간에서의 담화의 중요성이다. 과거에는 첫째 주간의 영신수련을 죄와 형벌, 죽음과 심판, 가벼운 죄와 미온성 등에 대한 고찰로 축소시켜 이해한 경향이 있었다. 보통 이러한 입장의 이해는 정화의 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이해되는 것이기에, 첫째 주간의 역동성에서 그리스도 중심성이 간과될 위험이 있다. 첫째 주간이 무르익으면서 닷새나 엿새 이상 진행되며 반복하여 되풀이되는 담화에는 한가지 중요한 공통 주제가 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자비의 원천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주제이다. “주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어떻게 내 죄를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에서 현세의 죽음을 당하시게까지 되셨는지 생각”[53]하면서 깊은 내적 회심을 겪게 된다. 그 어느 누구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53]라는 고뇌의 질문을 비껴갈 수 없다. 첫째 주간의 목상 중에 진행되는 담화에서 피정자는 오로지 십자가 안에서만,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는 그분 자신과 그분의 지속적인 현존을 보고 맞들인다. 피정자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시며 오히려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주시고, 아직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시각의 첫째 주간 이해가 과거에는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피정자가 점진적으로 은혜로부터 은혜를 베풀어주신 분께로, 십자가상의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분의 전 생애로 관심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런 움직임인 것이다. 첫째 주간의 내적 역동성은 베풀어주신 자비에 감사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비하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저항할 수 없는 강한 열망으로 이끌어 간다. 즉, ‘그리스도 왕국’ 목상에서 고찰하는 것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왕과 결합하여 보답하고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분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옮겨가라는 부르심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응답은 구세주를 사랑하는 강한 열망 안에서 표현되며, 따라서 그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의 생애 안에서, 그 자신을 드러내온 바대로 그분을 알고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첫째 주간의 역동적인 흐름은 ‘그리스도 왕국’이라 부르는 목상의 점진적인 고찰에 모여지는데, 이는 피정자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준 분의 삶을 관상하기를 몹시 열망하여, 그분을

보다 더 친밀히 알고 사랑하는데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왕국’은 이렇게 아주 담담하게 서술되어 직접적인 중요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IV. 예수회 전통 안에서의 ‘그리스도 왕국’ 목상

제 1차 세계대전 초엽에 교회법 학자이며 윤리신학자인 벨기에인 아더 베르미르쉬(Arthur Vermeersch)는 「그리스도의 군사」(*Miles Christi*)라는 책을 출판했다. 불어로 쓰여진 이 책은 즉시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는데, 이 책에서는 「영신수련」을 고전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 저자는 ‘원리와 기초’, ‘그리스도 왕국’, ‘두 개의 깃발에 대한 목상’, 그리고 ‘겸손의 세 가지 단계’ 등의 4개 주요 목상들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그리스도 왕국’을 “둘째 혹은 새로운 원리와 기초”라고 부르며, 이 둘째 원리는 첫째 원리에 기초하여 변형된 것이라고 해설한다. 그는 왕, 부르심, 응답이라는 비유의 구조로 이 원리를 해설하고 있다. 물론 그는 다른 고찰들이나 목상들을 해설하면서 ‘그리스도 왕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베르미르쉬의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해설을 기점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신수련」 주석가들이 다양한 해설을 제시해 왔다. 예를 들어, 루탄(Roothan)은 ‘그리스도 왕국’을 전략적인 측면의 해설을 시도했고, 프르지우스(Frusius)는 투쟁의 정신을 기본으로 이 목상을 해석하기도 했다. 1555년에 출판된 「영신수련」 이탈리아어판에는 영적인 투쟁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어 “군사 *soldati*”라는 표현이 4번이나 사용되기도 했기에,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민첩함은 이제 하느님을 따르고 그분께 순명하는 민첩함으로 변형되기도 했다.

이처럼 전쟁이나 투쟁과 같은 정신구조가 점차로 예수회 내에서 「영신수련」의 해설에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초기 예수회에는 이러한 이해가 결코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후에 출판된 「영신수련」 지침서나 해설서들을 비교해보면 초기 예수회 전통에서는 군사적 정신이나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비교적 부드러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문헌들에서는 “왕”이라는 말조차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전투, 무기, 전쟁 등의 용어도 그리 자주 사용되지도 않는다. “거슬러 행하라”의 의미, 또 “더욱 고귀하고 더욱 가치 있는 봉헌”[97]에 대한 진지한 관심도 없다. 오히려, 사명, 완성, 모방 등의 주제가 강하게 부각되고, 목상은 보통 “주 그리스도의 생애와 업적의 줄거리와 요약”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한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영신수련」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훌륭한 지도자로 알려진 페레이라의 지침서에는 이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첫째 주간을 마치면서 곧바로 둘째 주간의 목상, 즉 ‘강생의 신비’ 목상으로 진입한다. 둘째 날에는 성탄과 관련된 사적들을 관상하는데 할애되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왕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시작된다”는 주석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는 둘째 주간의 목상들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Ego sum via, veritas et vita*” 라는 제목을 단다. 곤잘레스 다비라 역시 이와

같은 과정을 따른다. 코르데세스(Cordeses)의 경우에는 이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언급이 없다. 끌로드 콜롬비에르(Claude de la Colombière)는 ‘그리스도 왕국’ 목상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 한편 그와 동시대 사람인, 마페우스(Maffaeus)는 ‘그리스도 왕국’ 목상을 첫째 주간의 끝과 ‘두 개의 깃발’을 목상하는 둘째 주간 시작 사이에 끼워 넣는다. 역시 동시대 사람인 유드(Judde)의 경우, 열흘 동안 진행되는 영신수련에서는 ‘그리스도 왕국’ 목상이 없지만, 긴 피정에서는 이 목상이 부르심에 관한 목상으로서가 아니라, 왕이시며 동시에 주님이시고 심판관이신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목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외에 다른 학자들이나 지도자들의 문헌에서도 역시 이 ‘그리스도 왕국’ 목상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이나시오의 측근인 나달에 의하면 예수회는 투쟁하는 교회(*militans Ecclesia*)의 뜻대로 싸우는 용감한 군대이기에 예수회 성소란 참된 투쟁(*vera militia*)을 위한 부르심이다. 이나시오는 영적으로 참되게 투쟁하는 수련들, 특히 네 개의 목상, 즉 ‘그리스도 왕국’, ‘두 개의 깃발’, ‘세 가지 타입의 사람들’, 그리고 ‘겸손의 세 가지 단계’를 예수회에 제공해주었다. 나달이 남긴 21개 항목의 권고들은 주로 이나시오의 생애와, 예수회의 목적과 활동 영역, 세 서원 등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인데, 이중 단 한번, 다섯 번째 권고에서 “전쟁과 전투 *inguerra y batalla*” 라는 용어를 영적인 의미에서 사용한다. 나달의 견해대로, 이나시오가 만레사에서 예수회에 대한 윤곽 혹은 ‘두 개의 깃발에 대한 목상’에 대한 첫 영감을 얻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그리스도 왕국’ 목상은 전통적으로 예수회의 창립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⁵⁾ 이러한 점이 바로 이 ‘그리스도 왕국’ 목상이 예수회의 정신이나 신원 이해에 왜 그렇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예수회 제 4대 총장인 머큐리안(Mercurian)은 ‘그리스도 왕국’ 목상이 비 예수회원들을 위한 목상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미론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경우에 있어서는 비 예수회원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 왕국’의 무엇이 바로 예수회 수도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일까? 베르미르쉬에 의하면 이나시오는 수도생활을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종군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만레사 이후 이나시오는 보속생활 이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마음에 없었다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회심은 이미 만레사에 도착하기 전 로올라에서 일어났다. 1522년 성모영보축일 전 날의 저녁기도에서의 체험은 확신이었지 결코 회심은 아니었다. 이나시오가 기사로서 그의 값지고 좋은 옷을 벗어버리고 결인의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상징적인 방법으로 그의 생애에 있어서 완전한 단절을 표현했는데, 이는 그의 회심 여정의 마지막 열매였다. 그러므로 그가 만레사에서 전쟁이나, 용맹성, 전

5) 이에 대하여는 졸문, “주님 안의 벗들. 예수회의 창설자 이나시오의 영성,” *영성생활* 13 (1997.5), 75-81쪽을 참고하시오.

투, 정복 등에 관한 생각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은 거의 있음직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레사의 체험 안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삼위일체, 창조의 신비, 성체성사적 현존, 그리스도의 인성과 모든 피조물 안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내적 조명과 통찰이다.⁶⁾ 사실 6천 내지 7천 통에 달하는 그의 서간문이나 「자서전」에서도 ‘그리스도 왕국’ 목상에 관한 내용이나 이와 유사한 정신에 관한 어떤 언급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자서전」에서 언급되는 표현들은 작음, 약함, 어린이 같은 신뢰,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보살피심에 대한 무저항 등이지, 결코 탁월한 관대함, 전쟁에 나감, *agere contra*, 혹은 탁월한 봉헌 등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일기」에서도 군인을 닮는다는 표현보다도 사랑스런 겸손, 사랑 안에 젖어든 겸손 등의 정신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⁷⁾

16세기 후반부에 이르러 매일의 목상기도를 통한 영적 훈련이 변성하기 시작하면서 정화, 조명, 일치, 단계를 더불어 「영신수련」의 4주간 구조를 따르는 매일의 목상을 위한 자료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자료에서도 ‘그리스도 왕국’과 같은 내용이나 형태의 목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17세기 후반기에 성찬, 수난, 동정녀 마리아에 관한 많은 목상들이 등장하고, 하느님의 무한한 완전성, 인간의 많은 병, 칠죄종, 신학적 덕목에 관한 본질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금욕주의적 고찰이나 목상들이 늘 주종을 이루면서도 ‘그리스도 왕국’ 목상과 같은 형태나 내용의 목상은 등장하지 않았다. 이는 예수회원이나 비 예수회원들 사이에서 똑같이 ‘그리스도 왕국’ 목상이 아무런 흥미도 일으키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해석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19세기의 시대적 풍조였다. 그 당시의 사회와 교회는 그리스도교적이고 종교적인 삶에서의 기사도적 행위가 요청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풍토에 따라, 「영신수련」 해설가들은 ‘그리스도 왕국’ 목상에 대한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예를 들어, 칼 라너(Karl Rahner)의 경우, 강생의 신비를 목상하는 것으로서 둘째 주간을 시작하는데, 성탄의 신비 관상 이후에 ‘그리스도 왕국’ 목상으로 되돌아간다.⁸⁾

이처럼, 예수회 전통은 ‘그리스도 왕국’ 목상의 중요성과 위치, 기능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지 않는다. 더욱이, 이 목상의 해석에 관해서도 일치된 견해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다양한 견해들 사이의 긴장은 이냐시오의 자필본과 프르지우스의 번역본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용어에 대한 간단한 비교 연구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이냐시오의 표현은 온화하지

6) 졸문, “「영신수련」의 기원으로서의 이냐시오의 영적 체험,” *신학전망* 105 (1994 여름), 147-168쪽; “「영신수련」의 원리와 기초에 나타난 이냐시오의 영적 세계관,” *신학전망* 110 (1995 가을), 114-136쪽을 참고하십시오.

7) 이에 대하여는 졸문, “성 이냐시오 로올라의 「영적일기」에 나타난 신비주의적 특성,” *신학과 철학* 제 2호 (2000), 7-39쪽을 참고하십시오.

8) K. Rahner, *Spiritual Exercises* (New York: Herder and Herder, 1965).

만 라틴어 번역본은 좀더 호전적이다. 번역본에 표현된 제목에서 현세적 왕은 그의 신하들이 전쟁을 벌이도록 초대하며, 기사(*caballero*)는 군인(*miles*)으로, 소명(*vocación*)은 전쟁의 소집(*bellica evocatio*)로, “거슬러 행하라”는 욕신과 감각, 세속적인 것에 대한 저항이요, 자기에는 정복되어야 하는 것이고, 고귀한 봉헌(*hago oblacion*)은 이제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당신 뜻에 복종시키는 것으로서 변형된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행하려는 기민함은 이제 봉사하고 복종하려는 기민함으로 변화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왕국’ 목상과 ‘두 개의 깃발에 대한 목상’이 예수회 창립자의 생애에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본 나달의 진술을 올바르게 평가하여야 한다. 나달이 언제나 ‘그리스도 왕국’ 목상과 ‘두 개의 깃발에 대한 목상’을 연결시켰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들 두 목상이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나달의 진술은 사실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두 개의 깃발에 대한 목상’은 로올라, 즉 부상당한 사람으로서의 이냐시오의 체험에로까지 되돌아간다. 그는 만레사에서 선신과 악신 사이에서 놀라울 정도로 악신에 휘말리기도 했었는데, 이 체험은 그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었다. 그는 이후에도 큰 상처는 아니었더라도, 최소한 그의 생애를 통해 갈등의 상처들을 지니고 다녀야만 했고, 필연적으로 이냐시오는 세상을 전쟁터로 밖에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체험과 안목이 이냐시오의 전 생애에 걸친 작업에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프르지우스의 번역본은 1546년과 1547년 사이에 출판되었는데, 이냐시오의 자필본은 보다 많은 부분이 1522년부터 편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사이의 간격은 거의 사 반 세기 이상이다. 이 25년 사이에 많은 것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냐시오는 회심 초기 당시의 일반 대중 신심과 정서적인 풍조에 따라 유대인이나 무어인들을 일종의 적으로 여겼을 것이고, 어느 정도는 그들과의 충돌 혹은 전쟁 등의 이미지들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정서에서 전쟁을 위한 부르심으로서의 ‘그리스도 왕국’ 목상이 채색되거나 이해되기도 했을 것이다. 물론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이해되거나 사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라도 이냐시오가 어떤 조치를 취했다거나 한 것은 아니다. 이냐시오는 이 목상의 본문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영감에 기초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지속적인 이끄심으로서의 성령의 인도를 믿는다. 성령의 영감과 그분의 이끄심에 대한 이냐시오의 개방적인 태도를 볼 때, 자기 자신, 일, 수도회의 창립 등에서 뿐 아니라 자신의 이념이나 의견, 혹은 희망과 기대 등에 있어서도 결코 자신의 주변 상황과 격리되어 형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군사적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켜 이 목상을 해설하거나 적용하는 경향에 대하여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 이 ‘그리스도 왕국’ 목상의 내용과 적용 방법에 대하여 아주 다양한 견해들을 접하게 되지만, 이들 사이에 부분적으로나마 공통된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요즘의 지도자들은

이 묵상에서 “왕” 혹은 “임금”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주님 *el Señor*”라는 이미지를 더 선호한다. 이 피정을 통해 피정자에게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려 하기보다는 “하느님과 일치할 위한 도구 *instrumentum Deo conjunctum*”가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도록 이끈다. 그리고, “거슬러 행하는” 정신을 반복하여 강조하기보다는 사랑의 동기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비유로서의 이 묵상에 대한 위치를 외면하고, 오히려 복음서의 장면들을 제공해 묵상이 진행되는 방법을 선호해 왔다. 베르미르쉬의 “그리스도의 군사 *Miles Christi*”로부터 라너의 “그리스도의 대리자 *Minister Christi*”로의 의미 전환이 있기도 했고, 물론 이러한 전환은 이 나시오의 본래 정신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가 상기해야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 왕국’이 첫째 주간과 둘째 주간 사이의 휴식일에 제시되는 “고찰”이라는 형태의 수련이라는 점이다. 예수회 전통에서 이 묵상이 그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오지 못했다고 해서, 이 묵상이 「영신수련」의 흐름에서 중요하지 않다거나 혹은 작은 일부분만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묵상은 「영신수련」의 흐름에서 아주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V. ‘그리스도 왕국’ 묵상의 내용

현세적 왕과 그가 수행하고자 하는 전쟁이라는 비유가 영원하신 왕과 그가 이루고자 하는 구원 사업에 적용되어 묵상이 진행된다. 물론 인간의 삶에 의미와 자유를 부여하는 이 구원 사업에 모든 이가 동참하도록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의지를 인식하고자 하는 묵상이다. 현세적 왕에 의해 제안된 전쟁에 동참하라는 초대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볼 때 영원하신 왕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 즉 그분의 은총을 단호히 거부하는 행위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 ‘그리스도 왕국’을 묵상하는 피정자는 첫째 주간의 열매 즉 올바른 내적 자유의 태도로 이 봉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고자 하는 열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첫째 주간에서 피정자는 자비하신 하느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되고, 이 체험으로부터 피정자는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이 열망이 아직은 무분별할 수 있기에 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 왕국’ 묵상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피정자의 영혼 상태를 대변해 주면서 동시에 이 열망들이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도록 이끌어 줌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준다. 이제 피정자는 ‘그리스도 왕국’ 묵상과 더불어 둘째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가. 둘째 단계로의 진입

1. “보다 더 *magis*”의 정신

이나시오적 관점에서 용서의 체험은 봉사를 향한 더 큰 열망이 움터나는 체험이어야 한다. ‘그리스도 왕국’ 묵상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받아들이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개방성과 관대함의 열망을 시험하며 단련시킬 것이다. 교회는 늘 용서함이 있는 곳에서 태어난다. 용서함은 사람들을 엮어주고, 공동체를 형성해 준다. 하지만, 이것을 잘 이끌어 주지 못하면 때로 용서의 체험이 너무나 개별적인 차원에만 머물게 된다. 사도적 열정이란 결코 일 그 자체에 매혹되는 열정이 아니다. 이 열정은 용서받은 체험에서 움터나는 열정이다. 이러한 관대한 열망이 피정자의 마음에 떠올라 등장하는 시점이 바로 첫째 주간이 마무리되는 지점이다.

충분하고 합당한 자질을 지닌 이들에게 「영신수련」이 주어질 때 비로소 더 효과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나시오의 견해는 예수회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나시오가 제시한 자질들은 특별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인격적 성숙이며, 둘째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체험들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성적 능력이고, 그리고 셋째는 구체적인 열매를 맺도록 이끄는 열망, 즉 완덕을 향한 큰 열망이다.

이나시오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종교적 체험의 근본 원리는 하느님을 향한 더 관대한 마음이 짐인 영적 자유를 불러일으키는데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첫째 주간의 영신수련들과 이어지는 나머지 과정의 수련들은 구분되어야 한다. 첫째 주간의 수련들은 이어지는 수련들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더 열성적으로, 더 자유로이, 더 관대하게 하느님께 대한 봉사에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피정자 자신의 영적인 리듬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이는 첫째 주간에서 자기가 원하는 죄에 대한 통회나 아픔이나 눈물을 다른 사람보다 늦게 얻게 되고, 또 어떤 이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이거나, 혹은 어떤 이는 더 많이 다양한 영들에 의해서 시련을 받거나 동요되는 까닭에, 필요에 따라 첫 주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때로는 연장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4]. 여기에서 관심 되는 바는 피정자의 마음 안에 자리잡는 앞으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열성이다. 이나시오는 「영신수련」의 과정에서 이러한 열성 혹은 열망을 대단히 강조한다. 이는 이러한 열망들이 영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나시오 자신의 체험적 지식 때문이다. 이러한 열망, 즉 첫째 주간을 마무리짓는 열망은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물러가겠습니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요한 6:68)하는 마음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이는 주 하느님께 대한 봉사의 열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열정은 그것이 아무리 숭고하다 할지라도 늘 우리의 죄스런 조건에 의해 침해당한다. 때로는 “천사의 탈을 쓰고”[10,14,332] 나타나는 유혹이기도 하기에 진지한 식별을 요한다.

첫째 주간에 진행되는 묵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얻어지는 죄스러움에 대한 깊은 내적 체험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53]라는 질문과 함께, 논리적이거나 지

성적인 결과로서가 아니라, 영혼의 자발적인 움직임에서 흘러나오는 열정을 표현해 준다. 이 열정이 피정자로 하여금 둘째 단계의 영신수련에 진입하도록 이끌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데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투신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이 열망과 열정은 깨어지기 쉽고, 때로는 다른 영적 움직임마저도 부쉬 버릴 위험성도 지닌다. 그러므로 식별의 지혜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특히 둘째 주간의 ‘영신식별의 규범’[328-336]은 여러 가지 훌륭한 인식들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둘째 주간 체험의 중심적인 흐름은 식별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두 가지 측면에서 둘째 주간의 수련들이 제시된다. 첫째,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이상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시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이 고찰되도록 해주어야 하고, 둘째, 이러한 그리스도인다운 소명의 관점을 수용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바를 받아들이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둘째 주간의 목적은 하느님 은총의 힘으로써 피정자 자신의 삶의 현장을 개선하고, 합당하게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2. 관상의 중요성

「영신수련」의 둘째 단계에 진입한 피정자는 이미 자신의 죄스러움과 나약함을 인식하고 있기에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고자 하는 자신의 열망에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알고 있다. 이 체험은 사랑과 봉사에 대한 그의 열망을 더욱 생동적이고 겸손하게 하며, 은총의 작용에 자신을 개방하게 한다. 그 결과로 피정자는 이제 관상을 통하여 하느님을 더 깊이 알아 가는 과정을 시작한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왕국’ 묵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화되고 구체화된 새로운 모습의 ‘원리와 기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제 둘째 주간의 관상들에서는 피정자의 입장과 처지가 바뀌었다. 피정자는 더 이상 죄인의 처지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으로 구원되었고 그리스도를 향해 이끌리는 용서받고 사랑 받는 이의 처지이다. ‘그리스도 왕국’ 묵상과 이어지는 둘째 주간의 관상들은 어떤 구체적인 관심 속에서 진행된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피정자가 구체적인 결정에 이르도록 이끌고, 하느님의 관점에 따라 자신의 삶과 생활신분을 재정비하도록 이끄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냐시오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아침에 잠이 깨면 즉시, 묵상제목을 생각하고 강생하신 영원하신 말씀을 그에게 보다 잘 봉사하고, 그를 보다 잘 따르기 위하여 더욱 깊이 깨닫기를 원할 것이다”[130]. 그리고, “묵상할 시간이 되면 즉시,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어디로 가며, 누구 앞에 나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과 그리고 또 내가 행하려고 하는 묵상을 잠깐 생각하고, 셋째 부칙을 이행하면서 묵상으로 들어갈 것이다”[131].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 왕국’ 묵상은 객관과 주관, 보편과 특수라는 이냐시오적인 변증법적 상호작용의 두 축 즉, ‘관상’과 ‘봉헌’의 두 중심 축이 상호적으로 관계한다.⁹⁾ 즉, 객관적인

것에 대한 집중으로서의 관상은 구체적인 소명에 빛을 비추어 줌으로써 관대함을 불러일으켜 주님께 대한 구체적인 응답을 심도 깊게 해준다.

나. 구원 사업에의 초대

‘그리스도 왕국’ 묵상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조명과 투신의 영적 여정을 개시한다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느님의 은혜는 창조적이기에 늘 우리의 삶이 당신을 향한 새로운 결단을 지니도록 촉구한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에 의해 부름을 받는 존재이기에 우리의 응답은 현실에의 안주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 계획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향한 투신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관상하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내적 자유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냐시오가 ‘셋째 단계의 겸손’[168]이라고 부른 초자연적인 열망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1. 이냐시오의 비유: 과거의 현재화

영원하신 왕의 부르심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적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을 펼치기에 앞서, 이냐시오는 하나의 비유를 제시하며 묵상하도록 권고한다. 이냐시오가 이러한 형태로 묵상을 제시하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 이 순간의 중요성을 의식하면서 이냐시오는 피정자의 근본적 태도, 즉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귀머거리가 되지 말고, 그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을 완수하는 데 열심하고 쾌활한 자가 되고자 하는”[91] 내적 태도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객관성과 주관성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이 묵상의 첫 부분에 대한 이견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이들은 현세적 왕의 부르심에 대한 묵상을 통해 더 나은 자세로 그리스도 왕의 부르심을 묵상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기도 한다. 제기되는 문제는 과연 이렇게 가상된 비유의 설정이 계시 진리를 묵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우리가 관심하는 바는 오히려 영원하신 왕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비유가 불러일으키는 피정자의 주관적 태도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열망이 지니는 역동성이 어떻게 둘째 주간에 영향을 주는지를 다루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 왕국’ 묵상은 독립된 단위로서가 아니라 전체 「영신수련」의 과정이라는 맥락에서 그 본연의 의미가 살피져야 함을 뜻한다.

9) Gilles Cusson, *Biblical Theology and the Spiritual Exercises: A Method toward a Personal Experience of God as Accomplishing within Us His Plan of Salvation* (St. Louis: Institute of Jesuit Sources, 1988), pp. 172-173.

이나시오의 체험, 특히 까르도넬 강가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여정에 있다. 이러한 이나시오적 세계관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 현세적 왕의 부르심이라는 비유 역시 보편을 향한 움직임의 한 점, 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죄스러움의 역사가 이러한 세계관의 맥락에서 살펴질 수 있었듯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간직된 진정한 열망의 역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숙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진실한 열망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주는 여정을 걸을 것이다. ‘그리스도 왕국’ 목상은 현세적 왕의 부르심이란 비유로부터 영원하신 왕의 부르심에 대한 관상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인간적인 축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은총의 힘은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린 우리의 존재를 깊이 할 것이다.

이것은 이나시오의 경우 로올라에서의 정화되지 않은 열망으로부터 만레사에서의 조명의 단계로 나아가듯이, ‘그리스도 왕국’ 목상은 피정자의 정화되지 않은 열망이 음지로부터 빛으로 나아가도록 이끈다. 즉 이나시오의 만레사 체험이 그러했듯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었던 과거의 열망과 관대함이 구체적인 비유를 통해 서서히 드러나면서, 영원하신 왕을 향한 열망과 관대함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목상의 핵심 요점은 관대함과 식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식별되지 않은 열망은 그릇된 광신을 가져오기도 할 것이고, 또 이러한 열망을 인간적 조건이나 가상적 설정 속에서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게 내버려 둘 수도 없다. 그러므로 관대함과 식별이 균형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비유가 열망을 불러일으키려고 고안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주간에 진입하는 피정자는 이미 쇠신되고 심화된 영적 열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비유가 기대하는 바는 이러한 열망이 증가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미 자신의 내면 깊이 자리했던 이러한 열망들을 들추어 돋보이게 해주며, 자신의 존재와 다시 깊이 연관을 맺어줌으로써 인간적 감수성의 피상적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자리잡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감수성은 언제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육화되어야 한다. 모든 영적 체험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불러일으켜야 하며, 만일 이러한 갈망이 그것이 오히려 나오는 원천에 근거점을 잃어버리고 또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자리잡지 못하면, 서서히 중심을 잃고 사라질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 비유가 제시하는 관대함이란 식별에 의해 정돈되면서 전폭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인간적 감수성의 정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피정자 개인의 과거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망을 되찾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목상의 ‘현세적 왕’이라는 비유의 고찰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마음은 준비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왕국’ 목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부르

심으로서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계발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점이 둘째 길잡이를 살펴보면 좀더 명확해 진다: “내가 원하는 은혜를 구할 것이니, 여기서는 내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귀머거리가 되지 말고, 그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을 완수하는데 열심히 애써 애절한 자가 되기 위하여 은총을 구할 것이다”[91]. 즉, 피정자는 이 목상을 통해 자신의 모든 인간적 관대함의 원천들을 영적 열망으로 통합시켜, 하느님을 향해 자신의 삶을 방향 짓는다. 현세적 왕의 초대와 영원하신 왕의 초대 사이의 유사성은 이 둘 사이를 단계로서 이해할 때 그 의미가 분명해 진다. 즉, 첫 부분은 부르심에 대해 자신의 전 존재로 듣기 위한 준비의 단계에 그 목적을 두며, 둘째 부분은 이 부르심에 대해 자신의 전 삶을 바쳐 응답함으로써 더욱 진보적인 성장에 그 목적을 둔다. 이런 맥락에서 현세적 왕의 부르심에 대한 목상은 영원하신 임금의 부르심에 대한 관상을 돕는다.

이 목상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 한 가지 더 언급할 사항이 있다. 현세적 왕의 비유는 약간 고풍스러울 수 있기에 우리 시대에는 맞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나시오의 시대에서는 매우 진보적이었다. 그렇다면 실천적으로 현대적 감각에 적용해서 상징을 새로이 설정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현세적 왕을 기업계의 어떤 거물로 대체하는 등과 같이 이 비유를 우리 시대의 정신에 새롭게 적용해야 하는가? 현세적 왕의 비유가 우리 시대의 정신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¹⁰⁾ 만일 그렇게 한다면 종교적이며 기사적인 ‘그리스도 왕국’의 분위기를 변화시켜서 「영신수련」의 역동적 힘이 감소될 소지도 있다. ‘그리스도 왕국’ 목상에서 현세적 왕과 영원하신 왕의 병렬된 묘사는 가장 장엄한 인간의 꿈과 하느님의 지혜로써 계획된 현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 목상의 맥락이 유지되며 충만한 힘을 내뿜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현세적 왕의 부름에 대한 응답을 직면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참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함에서 오는 과생적인 힘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비유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강조할 점은 이 목상의 의미가 표출되도록 배려하는데 두어야 한다.

2.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영적 성장

둘째 주간을 전제로 해서 ‘그리스도 왕국’ 목상이 염두에 둔 목표는 피정자에게 구원과 성화의 하느님의 계획을 제시해서 그로 하여금 이 진리를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수용하는 마음가짐을 준비시키는데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구원의 신비에 대한 성서신학적 관점을 살펴볼 것이다.¹¹⁾

10) Gilles Cusson, *op. cit.*, p. 184.

11) 이 부분은 주로 Gilles Cusson, *op. cit.*, pp. 185-204를 참고하였다.

a. 부르심: 사제적이며 희생적인 사명

구원은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하느님은 죄에 의해 파괴된 당신 백성의 일치를 다시 일구어 내시는 분이시며, 생기 있는 당신의 영을 우리 각자에게 불어 넣으셔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변형시키시는 분이시다.¹²⁾ 하느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과 그 이행은 이제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¹³⁾ 급기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¹⁴⁾ 우리 중의 하나가 되신 예수님에 의해 우리는 생명의 유산을 받으며, 하느님의 아들들로서 즉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서 새로운 실존으로 들어간다.¹⁵⁾ 성서에 펼쳐지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그 약속에서 실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불충실, 하느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말씀의 강생, 죽음과 고통, 생명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우리는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구원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부르심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우리의 지성을 적용해야 한다.

구원에 대한 신학적 논의에는 죄와 신화(divinization)라는 양극단의 주제가 연결되어 있다. 구원의 본질은 하느님과의 완전한 통교 즉 신화이고, 죄는 이 통교를 일그러트려 노예의 상태로 전락시킨다. 구원의 역사는 이 대립된 두 상태 사이에서 화해를 이루려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영원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으로서의 인간의 실존과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인간의 위치 이들은 결코 화해될 수는 없다. 구원의 역사는 죄의 엄청난 무례함으로부터 하느님께 대한 엄청난 감사에로의 여정이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극단이 완전히 와해된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하느님의 신비가 이루신 업적인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신화, 즉 “하느님과의 완전한 통교”이기에 형이상학적으로 하느님에게만 속한 이 구원을 인간 자신이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구원은 하느님의 힘에 의존되어 있기에 사제적이다. 사제적이란 화해를 향한 하느님의 전능한 힘으로서 인간을 위하여 일하시는 힘이다. 그러나 구원은 온전히 자유롭게 일하시는 하느님의 힘이지만, 그 현실화를 위해서 인간의 협력과 인간의 자유와 구체적인 수용을 요구한다. 하느님의 힘은 인간의 깊은 내면에서 일하시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신적 생명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 여정은 자신으로부터 이탈되는 구원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원은 바로 자기를 버리는 것으로서 또한 희생적이다. 즉, 구원은 사제적이며 동시에 희생적이다.

성자의 구원 사명은 본질적으로 사제적이다. 그리스도안에서 자신을 인간과 일치시키시는 육화하신 하느님은 늘 화해를 위해 일하시며, 또 사람들을 당신과 화해시키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

12) 참조: 예제 36:9-11, 16-28, 33-36.

13) 참조: 히브 1:1-2.

14) 참조: 요한 3:16-18.

15) 참조: 갈라 4:1-7.

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또한 희생적이다. 우리와 꼭 같이 되심으로써, 깨어지기 쉬운 인간 조건을 취하시면서 그것을 새로이 회복하셨다. 이는 그분이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보인 죽음을 받아들이신 순명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중보자로서, 아버지의 영광 안에 새로이 난 인간의 모상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그 모든 애착을 벗어버리고 다시 하느님을 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우주적 움직임 속에서 하느님과 새로이 일치를 이룬다.

b. 응답: 그리스도인의 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 신비, 혹은 그분 안에서 완성된 하느님의 위대한 구원의 약속을 향해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화해의 길을 걸으신 그리스도는 죄스런 우리의 실존을 하느님과 온전히 화해를 이루게 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알고 계신다. 그분은 그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이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푸신다. 성서적으로 “아멘”이라는 말은 투신을 뜻하는 말이다. “아멘”이라는 것에 의해, 어떤 이는 다른 이와 일치할 고백했으며,¹⁶⁾ 사명을 수용했고,¹⁷⁾ 맹세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르는 하느님의 판단을 생각했다.¹⁸⁾ 우리의 “아멘”은 하느님의 계획에 전심 전력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그분을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인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알고 계신다. 그분은 그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고 구원하신다. 구원은 영원하신 하느님의 실존과 유한한 인간 실존의 참된 만남이며 화해이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세례 안에서 신앙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가 성부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나누는 그의 생명이 스며들어 있는 성사적 삶을 통하여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다운 소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¹⁹⁾ 육화하신 말씀의 삶은 구원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삶이었으며 이 사명은 바로 사제적이며 희생적이었다. 이런 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 사업에 불리움 받은 것이며, 본인이 의식하든 안 하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제적 직분을 나누어야 하고, 모든 인류를 하느님께 이끄는 소명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은혜는 그 본질상 구원적 가치를 지니고,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에 동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도록 촉구한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16) 참고: 1 열왕 1:36.

17) 참고: 예레 11:5.

18) 참고: 민수 5:22.

19) 참고: 히브 3:14.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사명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죄스런 조건에 의해 창조된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우리를 보내신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53]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영적인 성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그 답이 분명하다. 나는 나의 온 힘을 다하여 보편적이고 사제적이며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사명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에게 나 자신을 일치시켜야만 한다.

c. 종합: 영원하신 임금의 초대

‘그리스도 왕국’ 목상의 제 2부 첫째 요점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간단한 개요가 초대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고,²⁰⁾ 나머지 부분들은 피정자의 응답으로서의 봉헌에 대한 내용이다. 이 개요에는 앞으로 전개될 관상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데, 즉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교의적 요소, 즉 그리스도의 사명과 이 사명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의 응답에 대한 교의적 요소가 담겨 있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가 단지 첫째 주간의 체험에서처럼 나를 구하시는 분으로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한 여정에서 우주의 운동을 지배하는 영원하신 주님으로서 표현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을 성부께로 인도하고, 성부와 통교를 이루게 하며, 성부 안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의 부르심은 말씀의 창조적인 행위로 표현된 설교를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행위에 포함되며, 아무 것도 주님의 사명과 이 계획으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모든 만물이 성부의 영광에 인도된다. 그래서 “나의 소원은 전 세계와 모든 원수를 다 정복하고, 내 성부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95]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 피정자는 영원한 임금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보도록 초대되며,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그가 부르는 모든 이가 초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초대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이 사명에 동참하기를 초대한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 되돌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정자는 이 목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안에서 보편적 구원과 이 부르심의 신비의 장엄함

20) “현세의 왕이 그의 부하들을 부를 때에 그들은 충성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물며 영원한 임금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 사람들을 당신 앞에 두시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시면서 ‘나의 소원은 전 세계와 모든 원수를 다 정복하고, 내 성부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나와 같이 수고해야 할 것이다. 즉 이 다음에 영광 중에 나를 따르기 위하여 어려운 때에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더 생각할 가치가 있는지 묵상해 볼 것이다.” 「영신수련」, [95].

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는 이제 하느님께로 인도되는 길을 떠난다. 이 길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의 제자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일치해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진입하는 것 그리고 “수고”와 “영광”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의 이 사명의 투신은 그리스도의 사명의 한 부분을 취하는 것이며, 이것은 사제적이며 희생적이다. 피정자는 이제 성부가 목적이며,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3. 자기 봉헌

「영신수련」의 본문에는 영원하신 임금의 초대에 응답하는 두 가지 양상이 제시되어 있는 듯하다. 이 두 가지 양상의 응답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제시되어 온 것은 아니다.

“올바른 판단력과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사업을 위하여 자기 전체를 바치겠다는 것을 생각할 것이다”[96].

“그 중에도 특별히 감동되어서 우리의 주재자이신 영원하신 임금께 봉사함에 있어서, 특수한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사업을 위하여 자기 전체를 바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고 자기의 혈육적이고 세속적인 사랑을 거슬러 더욱 고귀하고 더욱 가치 있는 봉헌을 하여 다음과 같이 아뢰는 것이다”[97].

물론 이 두 가지 양상의 답은 통일된 한 응답으로서 두 국면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암브루지(L. Ambruzzi)는 첫 번째 응답은 선량한 상식에서 흘러나오는 응답이고 둘째 응답은 관대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응답이라고 본다.²¹⁾ 하든(J. Hardon)은 첫 번째 응답은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봉사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응답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 응답은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평범한 봉사보다는 더 뛰어난 봉사를 영원하신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응답이라고 본다.²²⁾

a. 그리스도의 ‘사업 trabajo’

이냐시오는 「영신수련」 본문에서 동사 혹은 명사로서 그 형태는 다르지만 세 가지 경우에 동일

21) L. Ambruzzi, *A Companion to the Spiritual Exercises* (Mangalore, 1592), pp. 72-74.

22) J. Hardon, *All My Liberty. Theology of the Spiritual Exercises* (The Newman Press, 1959), pp. 24-33.

한 단어(trabajo, trabajar)를 사용한다. 스페인어 본문과 영어 번역문, 그리고 한국어 번역문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다양한 번역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영원하신 임금께서 제시하시

	스페인어	영어	한국어
[95]	ha de trabajar conmigo	has to labor with me	나와 함께 수고해야
[96]	ofrecerán todas sus personas al trabajo	will offer their entire selves for the work	이 사업 을 위하여 자기 전체를 바치겠다는
[97]	no solamente ofrecerán sus personas al trabajo	not only will offer their persons for the work	이 사업 을 위하여 자기 전체를 바칠 뿐만 아니라

는 일 혹은 사업(trabajo, task, work)은 수고(labor)와 고통(pain)을 동반하는 임무이며,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사명이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표현되는 응답은 단지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자신을 내어주는 측면, 즉 봉헌의 측면만을 강조하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명을 받아들이고 수행함에 따르는 역경과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영원하신 임금의 부르심은 구원 사업의 장엄함과 동시에 거기에 버금가는 수고와 고통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잇따라 올 영광도 함께 보여 준다.

b. 두 가지 응답의 본질

‘그리스도 왕국’ 목상이 기획하는 바는 피정자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관상하면서 그분의 부르심을 알아듣고, 이 부르심에 관대하게 응답하면서 현실적인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봉헌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관상하면서 사랑에 찬 응답이 봉헌을 통해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이 목상의 본 제목은 “현세적 왕의 부름에서 영원하신 왕의 생활을 관상함 *El llamamiento del Rey ayuda a contemplar la vida del Rey Eternal*”이다. 즉, 그리스도의 삶을 관상하면서 피정자는 구원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을 심화시킨다. 모든 이는 단지 하느님의 구원을 나누도록 불리움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구원 사업에 투신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놓음으로써 온 우주가 하느님을 향하는 여정에 함께 일하도록 초대된 삶이다.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한 구원 계획의 경이로움을 관상하는 피정자의 첫 번째 응답[96]은 보편적 사도직에서 한 부분을 취하려는 열망에 의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그의 삶이 어떠한 건 앞으로의 그의 삶은 구원의 사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신을 연계시키며, 세계를 이끄는 이 일에 전심 전력으로 협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 부르심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의 의미이다.

두 번째 응답[97]에서 우리는 “더욱 고귀하고 더욱 가치 있는” 관대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삶이 제약됨이 없는 관대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으며, 그 극치는 물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모습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그리스도 왕국’의 봉헌은 특전적인 소수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그 충만함 안에서 자신의 소명의 충만한 의미를 자각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다. 현실로서의 ‘그리스도의 왕국’인 교회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를 묵상함에 있어서 교회의 신비를 마음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구원 사명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 왕국’의 현실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영신수련」의 내적 논리는 잘 조직된 교리의 체계에서보다는 지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루는 내적 체험에 있기에, 객관성은 언제나 주관적 지평의 배경에서 제시되고 주관적 체험은 진리의 빛 아래에서 그 의미가 밝혀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왕국’이라는 비유의 현실태인 교회의 신비를 관상하면서, 진리의 지평 아래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을 향해서 집중하게 된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체적인 구원 활동에 집중된다. 따라서 ‘그리스도 왕국’ 묵상에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선택의 여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개되어 갈 것이다. 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관상은 투신의 기반이 될 것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성숙한 투신이 전개되어 갈 것이다.

우리는 구원 계획의 현실적 특징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주님의 메시지에 대한 객관적 지평에서 영원하신 임금이 당신의 부르심을 통하여 제안하는 구원의 사명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현실화되고 유지된다는 것을 관찰해야만 한다. 그리고 둘째로 투신의 차원에서 우리는 교회가 수행하는 교회적 사명과 신비를 깊이 이해하고 동시에 오늘날의 구체적인 인물들을 통하여 수행해야 하는 역할들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지녀야 한다.

구원 사명의 차원에서 ‘그리스도 왕국’의 현실적 실재는 교회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안에서 지금 실재가 되는 하느님의 구원 의지의 역사적 구체화이다. 이냐시오에게 있어서 교회는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한 하느님의 엄위하신 계획의 부분으로서 사랑 받고 인식되었다. ‘교회의 정신과 일치하는 사고방식’[352-370]에서 제시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참된 정배이다. 그러기에, 이냐시오는 온전한 존경과 경애심을 지니고 현실로서의 교회를 사랑했고, 이 교회를 위해 삶 전체를 바쳐 봉사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열렬한 봉사는 이냐시오를 “교회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

다.

VI. 나가는 말

‘그리스도 왕국’ 묵상은 궁극적인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에서 출발하여 이 신앙 밖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초대하는 수련이다.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에 대해, 그리고 인류와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의 핵심적인 표현이다. 대체로 인간 논리에 있어서 고난과 승리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결이 없으며, 논리적으로도 연결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을 기초로 하는 그리스도교적 논리 안에서는 필연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자신의 수난과 죽음을 기초로 하여 받아들이며, 이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이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 죽음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분의 죽음과 필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그분의 부활의 의미를 발견하는 신학적인 문제다. 이 새롭고 그리스도교적인 논리가 바로 ‘그리스도 왕국’ 묵상 작업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인간적인 논리의 법칙 안에서 일한다. 인간이 자신의 존존재를 시련을 감당하는 데 봉헌해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지각 안에서 확실히 논리적인 결론이 아니다. 이는 여기에서 이냐시오가 특별히 그리스도교적 논리에 의해 응답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냐시오가 이 묵상의 결론 부분에서 묘사한 것도 정상적인 지각 안에서의 논리적인 결론이 아니다. 여기서 이것은 시련의 경험 너머로 이끄는 영원한 왕이요, 우주적인 주님이 보다 더 큰사랑으로 이끄는 총체적인 봉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더욱 가치 있고 소중한 자기 봉헌을 가능케 하는 신중한 자기 극복의 영역으로 들어가며, 여기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현세적 고통과 가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현세적 종말을 의미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냐시오의 논리는 이 묵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교 신앙의 특수한 논리의 영역 안에서 움직여진다. 즉 그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 진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다.